

Japan Weekly Digest

2011. 10. 29. ~ 11. 04.

☐ 금주의 이슈

- 70엔대 예상한 일본기업들의 엔高 경영
- 도요타자동차, 태국의 대홍수로 자동차 감산 확대
- 일본기업들 해외조달 크게 늘려

☐ 일본기업전략

- 소니, 삼성과 액정패널사업 합작해소 교섭
- 카네카, 아시아사업 강화를 위해 총괄회사 설치
- 일본의 대형 조선사, 바이오에타놀 제조 장치 증강

☐ 경제산업성 동향

- 경제산업, 희귀금속의 재이용 검토
- 바그다드 국제전시회에 민·관 경제미션 파견

☐ 보고서 리뷰

- 『인프라 수출성장전략의 재구축』 일본종합연구소, 10월29일



대한한일경제협회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 자료제공 :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

※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http://www.kje.or.kr>)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사오며,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02-3014-9888)

◆ 금주의 이슈

□ 70엔대 예상한 일본기업들의 엔高 경영

- 전기, 자동차 등 일본의 주요 기업들이 엔高 장기화를 예상한 경영에 착수
 - 샤프, 코마츠, 덴소, 일본전산, 후지쓰 등 일본 주요기업들은 엔화 환율을 달러당 75~78엔으로 변경
 - 과거의 엔高 국면에서는 환율이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엔高 국면에서는 최고치 권에서의 추이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 특징
 - 일본정부·일본은행에 의한 외환시장 개입이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많은 기업들이 엔高기조 정착을 전제로 전략을 짜고 있음
- 기업들은 해외생산 확대 등 엔高 대책을 서두르고는 있으나 수익에 끼치는 영향을 피할 수 없는데다 태국의 대홍수에 의한 악영향도 나타나고 있음
- 10월 31일 오전 엔화가 75엔 32전으로 사상최고치를 갱신함에 따라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이 외환시장에서 엔화 매도·달러 매입의 외환개입을 실시. 이에 따라 엔高가 다소 진정되는 상황

□ 도요타자동차, 태국의 대홍수로 자동차 감산 확대

- 도요타자동차는 태국의 대홍수 영향으로 9개국에 산재해 있는 도요타자동차 공장들이 감산에 들어간다고 발표. 태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전자부품의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임
 - 홍수로 인한 감산규모는 지난주 말까지 누계로 태국에서 69,000대, 일본에서 22,000대 예상
 - 조달에 문제가 발생한 전자부품은 일본과 동남아시아에서 대체 조달
- 도요타자동차는 전세계 22개국·지역에서 완성차를 생산, 수지나 주물 등 구성부품을 포함하면 대부분의 도요타공장이 태국으로부터 부품을 조달하고 있는 실정

□ 일본기업들 해외조달 크게 늘려

- 일본기업들의 글로벌조달이 가속화되고 있음. 도시바의 경우 해외조달비율을 60%에서 70%로 늘릴 계획으로 당초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11년도 중반까지 달성한다는 방침. IHI도 발전용 보일러의 조달기능을 싱가포르로 이관, 후지중공업은 신형차에 한국산 램프를 사용
 - 엔高, 동일본 대지진, 태국의 홍수 피해 등의 영향으로 조달처를 다양화하여 환율변동이나 재해에 강한 조달망을 구축하기 위한 방편임

◆ 일본기업전략

□ 소니, 삼성과 액정패널사업 합작청산 교섭

- 소니가 삼성전자와 액정패널 합작사업을 해소하기 위해 교섭에 들어감. 액정패널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합작사업에서 철수, 아웃소싱을 확대함으로써 패널비용을 줄이려는 의도
- 세계 TV시장에서 1, 2위를 다투던 양사가 주요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전략적 제휴를 실시하였으나, 패널의 대폭적인 과잉공급이 발생하면서 전략적 제휴 의미가 희석
- 소니는 금년중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합작사업을 청산해야 하는 삼성으로서는 새로운 판매처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조건교섭이 난항에 빠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소니의 TV사업은 7기 연속 적자. 패널 및 TV의 자사생산을 대폭 줄이고 개발·설계쪽에 특화함으로써 수익개선을 서두르고 있음

□ 카네카, 아시아사업 강화를 위해 총괄회사 설치

- 일본의 유명 화학메이커인 카네카는 아시아사업 강화전략의 일환으로 내년초 상해에 사업총괄회사를 설치하고 한국에도 A/S, 판매지원 등을 담당하는 현지법인을 설립 예정. 아시아지역의 매출목표를 2012년도까지 전체 매출액의 20%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
- 2014년도에는 인도에 특수염화비닐수지를 생산하는 신규 공장을 대만에는 시장조사를 위한 현지법인을 각각 설립할 예정

□ 일본의 대형 조선사들 바이오에타놀 관련, 제조장치 증강

- 히타치조선과 미츠이조선 등 일본의 대형 조선사들이 탈수에 사용되는 제오라이트막이라고 불리는 바이오에타놀 제조장치의 생산능력을 증강할 계획이며 양사 모두 독자기술을 사용
 - 히타치조선은 내년 3월말까지 오사카시에 있는 칫코공장에 월산능력 2,000~3,000본의 제오라이트막 양산설비를 갖추 계획
 - 미츠이조선 역시 오사카에 있는 제오라이트막 생산설비를 증강, 월산 생산능력을 종래의 2~3배 수준인 5,000-6,000본으로 확대
- 현재 바이오에타놀 보급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제조 관련 장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경제산업성 동향

□ 경제산업성, 희귀금속 재이용 검토

- 경제산업성은 가전, 자동차부품 등에 포함된 희귀금속과 희토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폐품의 회수·재이용방안을 검토. 위법한 회수행위 방지나 기술 개발 촉진 등이 목적
- 희귀금속은 중국 등 산유국의 수출한도 감축과 함께 신흥국의 경제성장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음
- 산업구조심의회 폐기물·리사이클소위원회에서 11월 8일부터 검토에 착수, 내년 여름을 목표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 휴대전화 등 소형가전제품의 리사이클제도 검토 작업에 들어간 환경성과도 연대하여 검토할 방침
- 독립행정법인 JOGMEC(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의 조사에 의하면, 희귀금속의 리사이클율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리튬의 경우 거의 제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바그다드 국제전시회에 민·관 경제미션 파견

- 11월 1일 경산성, 외무성, 민간기업들로 구성된 민간경제미션이 이라크 바그다드를 방문, 국제전시회에 참가
- 목적 및 기대효과
 - 일본기업의 對이라크사업 수행을 위한 산업시설 견학과 현지인맥 구축
 - 이라크에서 일본기업의 비즈니스 가속화
 - 국제전본시 참가는 2003년 이후 처음
- 주요 활동
 - 전시회에 설치된 일본부스에서 일본제품 프로모션
 - 이라크 무역성, 투자위원회 등 정부기관 관계자 및 출전기업 간부들과 이라크 시장의 진출가능성 등에 관한 의견교환
- 미션 구성
 - 외무성, 이라크부흥지원 등 조정담당 대사/경산성, 중동아프리카 과장/민간기업 9개사(상사, 엔지니어링, 메이커)/정부관련기관 JETRO, 중동 협력센터 등

◆ 보고서 리뷰

『인프라수출 성장전략의 재구축』 일본종합연구소, 10월29일

□ 일본의 신성장전략과 인프라 수출

- 일본 민주당 정권의 「신성장전략」의 하나인 아시아경제전략중 향후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것이 바로 「패키지형 인프라 해외사업」임. 인프라수출이 성장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는 배경에는 선진국의 인프라 시설 노후화, 신흥국에서 인프라에 대한 신규 수요 확대된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세계경제포럼에 의하면 세계 인프라수요는 약 3조달러(세계 GDP 5%)에 달함.
-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신흥국의 경우 인프라가 정비될수록 경제 성장율이 높아지고 수입수요가 높아지는 선순환 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임
- 일본의 경우 국민일체로 인프라수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대지진재해로 인하여 원전수출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패키지형 인프라수출을 위해서는 개별 기업의 우수한 기술에 더하여 ①높은 독립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설명책임을 다할 수 있는 관료기구, ②안정된 정권, ③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체계 등 세가지가 필수불가결함

□ 세계 인프라수요 쟁탈전

- 향후 대형 인프라는 (a)수주 여부가 주로 국제정치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점, (b)신흥국의 대두로 경쟁이 훨씬 치열해진 점, (c)선진국 간의 경쟁도 격화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주가 결코 용이하지 않은 상황임
- 인프라 수요 확보를 위한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신흥국, 선진국을 불문하고 설사 상대국이 문제가 있는 국가라고 해도(파탄/취약국가 등) 지원을 실시하려는 상황임. 인프라 정비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민간기업들이 위험을 부담하고 투자자금을 조달하고 있음

□ 일본의 인프라 수출전략

- 일본의 경우 개도국에 대한 인프라수출과 관련하여 그동안 주로 ODA에 의존해왔으나 최근 재정적자 누증 등으로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
- 이에 인프라수출을 경제성장의 견인차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 관·민이 파트너 십을 형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새로운 형태의 관민협력으로 지방자치체도 참여)활성화, 인프라수출을 통한 기업들의 對개도국개발 참여의식 강화가 중요

【금주의 일본 주요보고서】

- (1) 『엔高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국제통화연구소, 10월29일

*출처: http://www.iima.or.jp/pdf/newsletter2011/NLNo_25_j.pdf

- (2) 『인프라수출 성장전략의 재구축』 일본종합연구소, 10월29일

*출처: <http://www.jri.co.jp/report/ber/detail/5730/>

- (3) 『거시 저축투자균형과 일본의 재정유지 가능성』 재무종합정책연구소, 10월29일

*출처: http://www.mof.go.jp/pri/research/discussion_paper/ron226.pdf

- (4) 『세계동시불황으로 인한 일본무역에의 영향』 경제사회종합연구소, 11월1일

*출처: <http://www.esri.go.jp/jp/archive/bun/bun190/bun184a.pdf>

- (5) 『무기수출 3원칙 현황과 수정 논의』 일본국회도서관, 11월2일

*출처: <http://www.ndl.go.jp/jp/data/publication/issue/pdf/0726.pdf>

- (6) 『투자입국으로 가는 길』 제일생명경제연구소, 11월3일

*출처: http://group.dai-ichi-life.co.jp/dlri/naga/pdf/n_1111a.pdf